



‘모든 노동자의 임금인상·노동권보장·사회공공성강화·사회대개혁 실현’

민주노총 교육지

▶ 민주노총 교육선전실 | 🌐 www.nodong.org | ☎ 02-2671-9120 | 2025. 3. 7.



내란 세력 청산! 사회대개혁 쟁취! 3.15 전국노동자대회 3.15(토) 오후 3시, 서울 을지로입구역 (전국집중)

☑ 파면이 확정인데 구속 취소? 노동자의 힘으로 다시 구속시키자!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이 내란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 파면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국민을 지켜야 할 군인들에게 국민 가슴에 총을 겨누라고 명령했던 것, 국회를 마비시키는 동시에 비상입법기구를 만들어 ‘왕(王)’이 되려 했던 사실까지 명백하게 입증되었다.

지난 2월 25일 윤석열은 감히 복귀를 입에 담았다. 그야말로 ‘호수 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를 쫓는 자다운 망언을 내뱉으며 73일 내내 남 탓, 야당 탓, 북한과 중국 탓을 하며 거짓말을 되풀이했다. 최후까지 구질구질, 비겁했던 윤석열에게 헌법재판소가 내릴 판결은 명백하다.

내란의 또 다른 주범 김용현은 감옥에서도 헌법재판관을 처단하라며 선동질하고 국민의힘 국회의원 서천호는 3월 1일 광화문 앞 극우 집회에서 공수처, 선관위, 헌법재판소를 “모두 때려 부숴야 한다. 처부수자”라고 난동을 부추겼다. 이처럼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광훈과 극우 무리에 빌붙어 불안한 자신들의 정치적 운명을 연장하려고 발버둥이다.

시민들에게 총부리를 겨누는 내란범을 거리에 활보하게 할 수 없다. 윤석열의 구속취소 결정은 윤석열의 반헌법 반민주 반노동 행태로 고통받아 온 국민을 능멸하는 행위다. 12월 3일 살 떨리던 밤 맨몸으로 계엄군에 맞섰던 시민들, 남태령과 한남동에서 서로의 온기를 의지하며 소중한 민주주의를 지켜온 모두에 대한 배신이다.

전 조합원의 단결된 힘이 절실하다. 3월 15일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내란 세력을 제압하고 운석열을 다시 구속시켜야 한다. 내란 세력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야 한다. 내란에 동조한 모든 내란범 하나하나의 소행을 파헤쳐 엄중하게 처벌할 때까지 우리는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 노동 중심, 사회 공공성 강화로 차별 없는 평등사회 실현!

우리가 꿈꾸는 새로운 세상은 차별과 혐오, 배제와 폭력이 없는 세상이고, 모든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하는 세상이며 노동의 대가를 정당하게 누리는 세상이다.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규직으로 일하는 세상이다.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가 '노동자'로 대접받는 세상이다. 최저임금을 올려달라, 적용 범위를 확대해 달라고 싸우는 대신 모든 노동자가 생활에 필요한 수준의 임금을 받을 수 있게 헌법과 법, 제도로 보장하는 세상이다. 최저임금 제도는 1987년 개정된 헌법에 보장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제도 자체엔 부족한 점이 많지만 우리 노동자의 투쟁으로 쟁취한 성과다.

일터와 함께 일상도 바뀌야 한다. 의료, 돌봄, 교육, 주거, 교통, 일자리 등 필수적인 분야의 국가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대부분 OECD 국가처럼 우리나라의 병원도 공공병원으로 바뀌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공공병원은 10%도 채 되지 않으며 공공병원 비중은 압도적으로 쏠쏠하다. 황혼육아, 간병지옥... 돌봄의 부담이 가정에 큰 고통이 되고 있다. 돌봄에서도 국가책임 강화해야 한다. 대학서열을 철폐하고 대학 무상교육 실현으로 청년들이 학자금 걱정 없이 자신의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게 해야 한다. 부동산투기와 불로소득을 차단하기 위한 법·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고 서민과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보장해야 한다.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이고, 전 국민에게 고용보험

을 적용해 실직으로 인한 빈곤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새로운 세상을 담을 새로운 헌법, 노동중심의 개혁 입법을 쟁취하자. 모든 법과 제도, 국가 정책은 주권자인 국민의 삶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 민주노총 1만 간부, 120만 조합원의 실천 투쟁으로 압도하자!

내란이 길어질수록 민생이 위험하다. 식품업체들이 가격을 올리고 있다. 빵, 커피, 밥... 먹거리 부담에 허리가 된다. 비상계엄과 내란 등 국내 정치의 불안 요소에 트럼프의 강달러 정책이 더해져 환율이 올랐고 이로 인해 물가까지 오르고 있다는 분석을 한국은행이 내놓았다('환율의 장단기 물가 전가 효과 분석'보고서, 한국은행 2월 27일 발간). 계엄 이후 정부 기능이 허술해진 틈을 타 계속 물가가 오를 것이란 전망이다.

2024년 12월 취업자가 2023년 12월에 비해 5만 2천 명이나 줄었다. 작년 소매 판매는 21년 만에 최대폭으로 감소했다. 자영업자도 작년 100만 명 이상이 폐업한 것으로 추정된다. IMF 때나 코로나19 당시보다 더욱 힘들다며 벅장 끝에서 신음하고 있다. 수출액도 작년 1월에 비해 10% 이상 줄었다. 경기는 바닥이고 주머니는 얇아지는데 물가는 계속 오르고 일자리는 줄어든다. 계엄과 내란으로 100조 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이 생겼다는 분석까지 나왔다.



내란은 고스란히 노동자와 국민의 삶을 파괴하고 있다.

7일 화물연대와 건설노조가 '내란잔재 뿌리 뽑고 화물, 건설현장 바로 세우는 대행진'을 시작했다. 화물연대 업무 개시 명령, 건설노조 건폭몰이와 양화동 열사의 죽음. 이미 우리 노동자에게는 지난 3년이 계엄이나 마찬가지였다.

더 이상 내란 세력이 날뛰 수 없게 우리가 압도하자. 민주노총 전체 사업장에 윤석열 파면 촉구, 국민의힘 해체 현수막을 달고, 각 거점에서 1만 간부가 출퇴근 선전으로 시민과 조합원을 만나 호소하자. 주말 비상행동 집회는 물론, 현재 선고일에 현재 앞과 지역별 거점에 긴급하게 집중 투쟁을 펼치는 등 투쟁의 고삐를 더욱 바짝 죄어야 한다. 3.15 전국노동자대회에 최대한의 조합원과 함께 하자!

☒ **내란 세력 청산! 사회대개혁 쟁취!** **3.15 전국노동자대회로 답하자!**

윤석열 파면 직후 대통령 선거로 돌입한다.

노동 의제들을 사회적으로 전면화하고 우리의 힘으로 압박하는 것이 중요하다. 노동기본권을 당당히 쟁취하자. 민중의 삶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사회공공성을 확대하자. 노동 중심, 노동 존중의 사회를 만들기 위한 대개혁안을 발표하고 대선 투쟁으로 전환을 선언하는 3.15 전국노동자대회로 만들자.

정치를 대신해 주는 자들 손에 맡길 게 아니라 우리 손으로 우리의 운명을 개척할 때이다. 윤석열 파면과 내란 세력 청산, 사회대개혁 쟁취를 위한 3.15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새로운 사회로 가는 길을 열자! 



민주노총 실천 지침

1. 모든 사업장, 가능한 도시에 파면 촉구 현수막 게시
2. 민주노총 1만간부 출·퇴근선전
3. 선고 직전 주말 집회에 전 조합원 집중
4. 현재 파면 선고일 현재 앞, 지역별 거점 집결